49회 율전 워크샵 합평회

김은별

1.캐스트

-공연 날 원래계획이 뒷깎이 후 리허설 후에 공연 전까지 휴식을 하는 거였는데, 뒷깎이가 많이 늦어져서 하나씩 밀려서 하마터면 리허설 없이 공연을 올릴 뻔 한 것 이 아쉬웠다. 이게 첫날만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화요일 때도 뒷깎이를 계속하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게 없지않아 있었다.

-캐스트로서는 정말 만족했는데 스텝들은 서운한 게 많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캐스트들끼리만 논다는 인식이 너무 강했던 것 같음. 이번 공연목적이 친목도모도 있었는데 캐스트끼리만 그런면이 있어서 아쉬웠다.

-스텝들이랑 못 친해진거, 신입생 입장에서 극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대공연이 끝나고 워크샵 시작전까지 이벤트가 없어서 좀 허무했다(?). 동아리 홍보할 때부터 캐스트나 공연진이 얼마나 바쁜지 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캐스트 의소분 톡방이 파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많이 안된 것 같다. 한주에 한번씩은 공연진 전체가 술을 마셔보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캐스트들이 친해진 이유가 술이 크기 때문에). 런스루를 돌릴 때 소강당을 빌리던지 비어있으면 가던지 해서 조명이나 무대를 직접 세우지 않더라도 오퍼 큐를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 싶음

-스텝회의나 캐스트 연습을 나누지 말고 같이 해서 소통을 하면 어떨까 싶음.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명 음향 오퍼 큐 연습을 공연 날 하지말고, 미리 했으면 좋겠다. 뒷깎이를 하는데오퍼가 공연 3번 다 달라서 정말 힘들었다.

\*분위기 좋다. 캐스트가 진지해서 좋았다. 술 강력 추천. 에너지 좋았다. 연습 막판에 연출님이 지쳤는데알아서 으쌰해줘서 고맙다. 아쉬운점 한가지 시간 엄수가 잘 안 이뤄졌다. 연습 당일에 빠진다고 말하면너무 슬프다. 캐스트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 절대 빠지지 말자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한다.

\*초반에 연습을 무단으로 많이 빠져서 한소리? 했는데 그 이후로는 서로 친해지기도하고 그래서 연습 잘나와줘서 고마웠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내가 본 어느 공연보다 좋았다. 정말 신입생 워크샵의 정석을 보여준것 같아서 기뻤다.

2.무대

-무대는 일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연진 수가 많았고 사전연락도 신경썼으며 선배들과 다른 팀에서 많이 애써줘서 일손이 부족한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스탭일을 처음하다보니 무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조명까지 함께 신경을 써주는게 무대일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못해 조명팀에 신경을 써주지 못한건 고쳐야 할 점인 것 같다.

-무대가 용달을 정말 많이 필요하지만 조명 또한 용달없이는 극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 용달을 받고 싣는것을 조명과 무대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무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에서 조명과 공동 부담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번 워크샵을 하면서 일단 율전 사람들만 하는 워크샵이다보니깐 만나기도, 교류하기도 편해서 좋았습니다. 무대 선배님들하고 우리팀은 역할 분담하고 일하는 건 잘 돌아가서 별로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서 고민도 많이했습니다. 다른 팀들을 봤을 땐 연극당시 모든게 관중들 기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연출진들은 대본 등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 좋아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저에게는 월요일 스텝회의가 수업이랑 겹쳐서 못갔다는 점이지 그거빼고는 좋았습니다.

-무대 벽을 더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무대 벽을 늘리면 돈도 많이 들고, 무대 디자인에서 이미고려된 상황에서 더 추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무대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무대가 너무 예뻤다. 무대 출입구 그림자때문에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게 조금 불안했다.

\*재학생 두분이 고생하심. 연출님이 런쓰루 이후에 벽 개수 정하긴 했지만 그와중에도 잘해주심. 미안하고 고맙다. 연출이 동선을 빨리 픽스하여 무대 크기와 벽 개수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대라는게 한명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무대감독님이 일 분배를 원활하게 해주셔서 다같이 참여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고맙다.

3.조명

-무대 대여기간을 더 늘려서 조명팀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철야때 시간고 역할 분배가 정확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미리 철야때 이부분에는 누가 어떤걸 할건지 잘 정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이번 공연 정말 성공적으로 올려서 스탭의 일부로서 기뻤습니다. 하나 아쉽다면 조명이랑 음향이 큐시트 전체적으로 나왔을때 대략이라도 먼저 이론적으로 맞춰본다면 뒷깎이나 리허설이 지연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라인 따기전에 그 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볼수 잇엇을건데 그렇게 안하고 라인부터 따서 고장난것을 늦게 확인해서 라인을 다시 딴게 아쉬웟습니다.

-조명개수를 점검해보지 않고 라인을 따서 후에 들어오지 않는 조명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웟고 조명을 어디에 달것인가 에 대해서도 정해진바가 없어 일단 달아보고 무대에 쏘아본다음 다시 다른자리로 바꿔야해서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조명오퍼가 뒤깎이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진행하다 보면, 이번에 중간에 조명기가 나가고, 라인이 정리가 안되었는데 전날에 밤새고 바타고 정신이 없었을 수 있다. 공연 직전에 혹은 공연 중간에라도 변수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캐스트들이 스텝들이 더 발벗고 뛰어줬다는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음향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만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조명 같은 경우는 평소 만져볼수 없는 장비를사용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오퍼 뒷깎이가 너무 힘들었다. 조명이 무대랑 어우러져서 예뻤다. 오퍼 3번바뀐게 캐스트 입장에서힘들었다.

\*무대가 뒤집어지면서 조명이 다시 뒤집어짐. 연출이 조명 에어리어 잡으면서 어렵다는 것을 깨달음. 조명인원이 너무 많아서 일이 오히려 잘 처리되지 못하는 느낌. 돼지코 변환 할 때 사람이 없었음. 오퍼 볼 때많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잘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공연 전에 뒤깎기가 2시간 걸린게 아쉬웠다. 많이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초반에 일하는 과정을 서로에게 안알려줘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제반조사를 어쩌다 못하게 되었는데 담당한 인원이 리더에게 제반조사 마감 전날까지 말을 안해주고 있었다. 그 이후에는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4.음향

-이번 워크샵이 스탭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음향 의소분 무대 조명 각 5명 정도씩이어서 할 일과 책임을 분담시켜줄 리더가 있었고 내가 그 리더였지만 만약 내가 리더가 아니었다면, 이번 연극을 더 소홀하게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스탭이 많을 경우에 리더가 얼마나 그 팀을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조명과의 호흡이 중요하고 연출과의 원할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음향 오퍼를 보면서 앞에 오퍼를 보신 분과 다른 음향재생 프로그램을 써서 음향 볼륨을 조절하는 일이 힘들어서 다음에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써서 오퍼를 보면 볼륨을 결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퍼 뒷깎이가 너무 힘들었다. 음향도 엄청 알맞게 들어왔다. 음악 잘골라서 예뻤어요.

\*음향 예쁘게 골라줘서 고맙고 오퍼도 잘 봐줬다. 근데 음향이 6명이나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2명이면 충분. 음향으로 들어온 신입생이 배울게 딱히 없었을것 같은 느낌이었다.

\*음향 보조? 까지 굳이 필요하나 싶었다. 안그래도 세번 공연 다 조명 음향 오퍼가 다 달라서 정신이 없었는데 보조까지 있어서 조금 더 정신이 없었다.

5.의소분

-그래서 스탭들끼리 술자리를 갖는등 따로 만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럼 스탭들끼리 친해져서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극회동아리가 연극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소품에 테이브가 붙여지거나 망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쉬는시간에 캐스트분들이 던지거나 하는 소중히 다루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조금 불쾌했습니다.

-의상이나 소품을 미리 준비하면 할수록 캐스트들이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좀더 빨리 알아서 의상이나 소품을 빨리 구했다면 더 좋은 연극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의소분 같은 경우는 “돈”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구해주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 자체에 대부분이 신입생들이고 재학생이더라도 스텝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스케쥴 적인 면에서 딜레이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의소분팀이 의상을 구하는데 난관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한다. 배역 의상을 구해달라고 했는데공연 전날까지 컨펌이 안되서 애를 먹었다. 의상을 입고 나서 분장을 하면 옷깃에 분이 묻는데 그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의소분팀한테 미안했다.

\*의상이 잘 구해졌다는 칭찬을 들음. 58기가 리드했어야 하는 입장.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열심히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 소품을 공연 연습 중에 사용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상이랑 소품을 구하고 있었던 게 아쉽다. 그래도 마지막에 구해서 다행이었지 못구했으면 정말 큰일날 상황이었던 것 같다. 자아들 의상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했으면 빨리 구했을 것 같은데 결국 미루다가 못 구해서 의상 교체해야 했던 것이 아쉽다.

\*의상과 소품을 구하는데 서로 너무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스탭 팀 중에서 역할 분담이 제일 안됐던 것 같다.

\*원래 분장이 오래 걸려서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캐스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분장이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했다.

6.연출

-연습전에 충분한 연출진의 준비-캐스트 숫자에 맞는 작품리스트 작성 필수, 캐스트들과 연습전에갠톡으로 연락해야함. 신입생 워크샵 같은 경우 캐스트들이 시간지키느나게 중요해서

-팀플이나 변수가 너무 많다. 연습계획을 미리 짜자.

-연습 첫쨋주가 중요. 연습 첫째주에 캐스트들과 친해지면서 에너지를 내야한다. 밝은 분위기. 신체도 빡세게 하는게 좋다. 같이 땀흘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연극 만드는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 중요

각색 할 때 유의 사항은 캐스트가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무대 조명 음향 순으로 스텝에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스텝일을 봐줄 수 있는 조연출을 얻는게 좋다.

\*캐스트 입장에서 연출적인걸 제시했는데 컷 당한게 속상했다. 캐스트가 너무 많은데 봐줄 수 있는사람이 적어서 아쉬웠다. 기초 트레이닝이 너무 짧았다. 대본을 좀 더 이야기 할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을것 같은데 짧아서 아쉬웠다. 전사를 써오라고 했는데 다같이 읽어보는 시간이 없었다. 캐스트 연습 할 때어떤 연습을 언제 하는지 미리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느껴졌다. 비는 시간이 없고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조연출님 사랑합니다. 지각을 했을 때 벌칙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이익/불이익이 나뉘었다.

\*연출 조연출 케미가 좋았다. 항상 연습 분위기를 즐겁게 주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7.기획

-(기획보조) 스폰을 받기보다는 소액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을 듯함. 2000원이나 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스폰 받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으리라 봄. 그리고 공연 시 박스에 받았던 후원금을 회식비로 쓰지 않고 다음 공연을 위해 그대로 둔다면 다음 공연 때 훨씬 수월해질 거라 봄.

-공연진이 35명이나 되서 관리하기 힘들었지만 기획보조도 도와주고 대부분의 스탭들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수월했다. 신입생들이어서 어렵고 힘들었을텐데 재학생을 중심으로 잘 따라줘서 고마웠다.

-투표를 올리면 오랜기간 동안 투표를 안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 공연진 톡방이 잡담으로 항상 카톡이 많이 와있는것도 아니고 기획이 공지하는게 대부분인데 공지방이라고 생각하고 꼭 봐줬으면 좋겠다. 투표가 어느방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투표를 안하면 기획이나 기획보조가 매번 개인적으로 연락해야되서 너무 힘들다.

-그래도 다른 공연보다는 덜 심한 편이었지만 스탭 수가 많다 보니 무임승차 하는 듯한 스탭들이 몇명 보였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만큼 끝까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워크샵 특성상 학기 중에 준비하기 때문에 훨씬 바쁘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샵을 하기로 한 이상 학업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하고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스폰은 당연히 모든 가게를 다 도는것이다.. 특별한 공지 없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서 따로 공지를 안했고 신입생들끼리만 팀을 짠 것도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총 4팀 중에 1팀이 스폰을 돌았던 가게가 너무 적어서 당황스러웠다. 이 때문에 예정에 없었던 캐스트들이 갑자기 스폰을 마무리해야했고 연습에 차질이 생겼다. 스폰을 도는 것이 쉬운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공연진이라면 우리 공연을 위해 조금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일을 할때만큼은 나이나 기수 상관없이 모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할말은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탭들의 단합에도 힘을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다. 준비기간이 짧다보니 일적인 부분에 신경쓰기 바빴던 것 같다. 다음 공연부터는 매주 회의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 식으로라도 단합을 주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폰 돌 때 명확한 라인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횟집은 빼고 카페까지 모두 방문해라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편이 스폰 도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명확하고 주저없이 가게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캐스트 스폰 도는거를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당황스러웠다. 연습에 차질이 있었던 것도 아쉬웠다. 선배님들한테 전화돌리는 것도 좀 더 일찍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스텝 회의 지각시 돈 걷는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8.기타

-스텝들 전원 인계서를 읽고 본인 임무를 확인하는 워크샵을 가졌으면해요.

-캐스트들도 무대철거 조금 도와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트는 그냥 먼저 뒤풀이 장소로 가버리니까 스탭은 뭔가 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워낙 공연도 늦게끝나니까 다같이 빨리빨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캐스트랑 스텝이랑 친해지는게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캐스트들이 아무래도 더 자주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캐스트끼리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스텝들이 와서 그 사이에 끼어드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캐스트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게 훨씬 바람직한 것 같다.

-스탭전체: 사람이 많다고 좋은게 아니다. 무대 철거할 때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데 그 외의 경우에는 일의 속도는 똑같고 오히려 소통이 안됨. 연출이 힘들었다.